아랍인의 신 개념

공 일 주*

目 次

Ⅰ. 서론
Ⅱ. 코란·이전의 신 개념
Ⅲ. 코란과 타우히드
Ⅳ. 결론 및 제언

Ⅰ. 서론

이슬람을 이해하는 데 가장 좋은 방법은 이슬람의 가장 중요한 내용을 배우는 것이다. 이슬람에서 가장 첫 번째 가는 중심 주제는 신 개념이다. 2001년 9.11 테러 이후 한국에서 이슬람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으나 이슬람의 신 개념에 대한 혼란은 더욱 가중되고 있는 느낌이다. 따라서 본고는 아랍인들이 인식하는 '알라'의 신 개념을 심도 있게 연구하여 코란 속의 신 개념에 대한 한국인의 이해를 돕고자 한다.

신 개념에 대한 선행연구로는 Samuel Zwemer의 *The Moslem Doctrine of God*(1905), Karen Armstrong의 *A History of God*(1993), Abd Al-Masih의 *Who is Allah in Islam*(1999), Frans J. L. Zegers의 *Is Allah God*(2008) 등이 있었다. 바레인에서 1905년에 발간된 사무엘 즈웨머의 *The Moslem Doctrine of God*는 이슬람의 알라와 기독교 하나님이 완전히 대립(Opposite)된다고 했다.[1] 그는 이슬

* 전 요르단대학교 교수

1) S. M. Zwemer, *The Moslem Doctrine of God*, New York: American Tract Society, 1905, p. 76.
사무엘 즈웨머는 무함마드는 우리 위에 있는(above us) 하나님을 가르치고, 모세는 우리 위에 있는 하나님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가르쳤으며,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위에 있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God above us, God with us and God in us)을 가르친다고 하였다.

람의 알라에는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fatherhood)이 없고 사랑의 속성이 결핍되어 있고, 알라는 절대적으로 불변하는 공의로운 신이 아니며, 알라의 속성에는 조화(harmony)가 결핍되어 있다고 하였다.[2] Karen Armstrong은 그의 책 *A History of God*에서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의 신 개념을 설명하면서, 가브리엘을 자주 계시의 성령(Holy Spirit of revelation)과 동일시하였고[3] 성경의 성령과 코란의 루후 알꾸두스[4]의 차이를 구별 짓지 못하였다. 그는 "코란에서 알라는 YHWH보다 더 비인격적(impersonal)이며, 알라에는 성경 하나님의 정념(pathos)과 연민(passion)이 결핍되어 있다"고 하였다.[5] 독일인 이슬람 전문가 Abd Al-Masih는 그의 책 *Who is Allah in Islam*라는 제목으로 무슬림들의 사고 안에서 알라, 그리스도 신앙의 빛 안에서 알라 그리고 알라의 참 모습을 서술하였다. 그리스도 신앙의 빛 안에서 알라는 삼위일체도 없고 아버지도 없고 아들도 없고 성령도 없고 사랑도 없다고 하였다. Frans J. L. Zegers는 그의 책 *Is Allah God*에서 기독교 초기에 기독교 안에 있었던 도케티즘, 영지주의(Gnosticism), 아리우스(Arianism) 그리고 네스토리우스(Nestorius) 등이 코란에 영향을 주었다고 진술하고 무함마드는 성경을 본 적이 없는 것 같다고 썼다. 무함마드가 아랍인들의 고대 우상인 '알라'를 코란에 삽입하여 코란 안에서 그 색깔을 바꾸었다고 하였다.[6]

아랍인의 신 개념을 고찰하기 위해서는 코란 어휘의 문자적인 의미(literal meaning) 뿐만 아니라 상징적인 의미(figurative meaning)까지도 알아야 하고 7세기와 21세기 아랍어 간의 어휘 의미 차이도 알아야 그 뜻을 바르게 번역할 수 있다. 오늘날 현대 표준 아랍어를 아주 잘한다고 해도 7세기의 아랍어 의미를 연구하지 않고는 코란을 바르게 이해할 수 없다. 결국 이 논문은 역사를 거쳐 변화하는 통시적인 연구 방법(synchronic study)을 포함한 역사적- 비평적 방법을 활용하였다.

---

2) *Ibid.*, pp. 110-116.

3) Karen Armstrong, *A History of God*, New York : Ballantine Books, 1993, p. 138.

4) 루후 알꾸두스는 영문 코란 번역서에서 Holy spirit라고 하였으나 알바이다위 코란 주석에서는 천사 지브릴(가브리엘)을 가리킨다고 하였다. 루후(rūh)는 spirit, soul, life라는 뜻으로 코란에서는 이 어휘가 가끔은 천사 지브릴 혹은 생명, 자비, 호기를 가리킨다(Deeb al-Khudrawī, *A Dictionary of Islamic Terms,* Beirut: Al-yamamah, 1995, pp. 168-169). 알꿈무스 이브라힘 루까(Al-Qummus Ibrahim Luqa)는 그의 책 "al-Masihiyyah fī al-Islām"(p. 97)에서 코란의 루후 알꾸두스는 지브릴, 이싸의 루후, 복음, 이싸로 하여금 죽은 자를 살리게 한 위대한 분 중 하나를 가리킨다고 했다.

5) Karen Armstrong, *op.cit.*, p. 143.

6) Frans J. L. Zegers, *Is Allah God*, 2008, p. 84.

Ⅱ. 코란 이전의 신 개념

1. 아람어의 신 개념

오늘날 아랍어 어휘들의 상당수가 아람어에서 왔다는 것은 아랍의 여러 학자들이 인정하는 바다. 기독교와 관련된 어휘만 찾아보더라도 알라(Allah)는 기독교 시리안어에서, 와히(Wahy)는 적어도 유대-아람어와 기독교 에티오피아어에서, 나비(Nabi)는 시리안어보다는 유대-아람어에서, 인질(Injil)은 분명히 그리스어에서 온 것인데 아마도 에티오피아 기독교인들을 통하여 무함마드에게 전달된 것으로 보이고, 끼블라(Qibla:기도의 방향)는 분명히 무함마드 이전부터 사용되었다.[7] 쌀라(salāh:의식적인 기도)는 유대-아람어에서 왔다고 하나[8], 핫즈(Hajj; 순례)는 히브리어에 기원을 둔다.[9]

성경에서 <아람>이란 어휘가 처음 등장하는 곳은 왕하 5장에 나오는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의 이야기에서다. 아랍인들이 이 지역을 정복한 후 시리안(siriyyān)이란 어휘에서 수리야(sūriyya; 오늘날 시리아)라는 어휘를 파생시켰다. '아람'이라는 어휘와 '시리안'이란 어휘가 동의어[10]로 쓰이기도 한다. 1세기에 유대인 학자들은 히브리어를 할 수 있었으나 농부들은 아람어[11]로 말하고 페니키아 해안(오늘날 레바논 해안)에서는 페니키아어를 사용하고 갈릴리 바다 주변에서는 시리안(Syriac)어가 사용되었다. 팔레스타인의 그리스인 도시에서는 그리스어가 쓰였고 남부의 일부 부족들은 아랍어를 쓰고 있었다.[12]

아랍어의 '알라'는 아람어의 '알라하('alāhā)'에서 온 말[13]이라고 한다. 아람어-

---

7) J. Dudley Woodberry, "Contextualization among Muslims: Reusing Common Pillars", *International Journal of Frontier Missions*, Vol. 13:4 Oct-Dec, 1996, pp. 173-174.

8) Odisho M. Gewargis Ashitha, Hilqa De Leshana, *Assyrian-Arabic Dictionary*, Baghdad: Matba'a ofset. 1997, p. 435.

9) J. Dudley Woodberry, *op.cit.* p. 174.

10) *Ibid.*, p. 17.

11) *Ibid.*, p. 49. 시리안어는 동부와 서부 방언으로 나뉘는데 서부 방언은 시리아, 메소포타미아, 시내 반도 지역의 방언이고 동부 방언은 이라크와 페르시아의 방언이다. 세 번째 방언으로는 팔레스타인의 방언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구사한 방언이다

12) Kenneth E. Bailey, *Jesus Through Middle Eastern Eyes*, Downers grove: IVP press, 2008, p. 292.

13) H. A. R. Gibb and J.H. Kramers, *Shorter Encyclopaedia of Islam*, Leiden: E. J. Brill, 1974, p. 33.

히브리어- 아랍어가 셈어로서 서로 공통적인 의미를 갖는 어휘들이 있다. 예를 들면 창세기 1장 1절의 "베라시트 바라 엘로힘(berashīt barā elōhīm)……"에서 히브리어 동사 "barā"는 창조하다는 아랍어 동사의 의미와 같은데, 아랍어 알바리(al-bārī)는 창조주라는 의미로서 히브리어 barā에서 온 것임을 알 수 있다.

중동의 신약 학자 케네스 베일리는 아랍어 '알라'는 시리안어에 기원을 두고 있다[14]고 했다. 아람어에서 어휘차용이 일어난 과정을 살펴보면, 아람어의 알라하가 아랍어로 오면서 알라흐('allāh)로 바뀌었는데 아랍어에서는 그냥 '알라('allāh)'라고만 발음하게 되었다. 본래 시리안어의 알라하('alāhā)는 이 단어의 끝에 오는 정관사 /hā/와 본래 명사 /alā/가 합쳐진 어휘이다. 그러나 '알라'의 아람어 기원설보다 아랍 무슬림들에게 더 우세한 학설은 아랍어 정관사 /'al/과 본래 명사 /'ilāh/가 합쳐져서 알라(al-lāh)가 되었다고 하거나 본래 '알라'라는 단어가 존재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후자의 주장은 알라의 아람어 기원설의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는 것이다. 아람어의 한 방언인 시리안어에서 /'īl/은 신의 이름이고 /'īl 'alahā/는 '주 하나님(al-rabb al-'ilāh)'이라는 뜻이다.[15] 사실, 아라비아 서남부 지역에서 시작된 아랍 이슬람 세력이 아람어를 사용하고 있던 요르단, 이라크, 시리아,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침입하러 왔을 때 이들 지역의 주민들은 아람어를 사용하고 있었다.[16]

이슬람의 창시자 무함마드의 아버지 이름이 압드 알라(압둘라, 알라의 노예, 혹은 알라의 숭배자)이다. 알라라는 단어가 무함마드 이전에 이미 등장하고 있었다는 증거다. 이슬람이 시작되기 전부터 알라라는 말은 아라비아 반도에 사용되고 있었다. 다만 그 어휘가 아람어에서 왔느냐 혹은 아랍어 그 자체에서 생긴 이름인가는 좀 더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역사상 기독교인으로 불리었던 아람인들

---

14) Kenneth E. Bailey, *op.cit*, p. 88.

15) Odisho M. Gewargis Ashitha, *op.cit.* p. 11.

16) 현대 신학자들이 의견의 일치를 보인 것 중에는 예수님의 주기도가 "Abba"라는 아람어로 시작되었다고 한다. 예수님 당시 히브리어는 문어(Written Language)이어서 당시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구어(Spoken language)인 아람어로 그의 제자들이 기도를 하게 하였으나 1세기에는 아람어 화자인 유대인(Aramaic-speaking Jew)들이 아람어가 아닌 히브리어로 주기도문을 암송하였다. 성경에서는 Abba(막 14:36; 롬 8:15;갈 4:6)라는 단어 바로 다음에 그리스어 ho pater(아버지)가 바로 따라 나온다. 아람어 Abbā에서 마지막 /ā/는 정관사를 가리킨다(Kenneth E. Bailey, Ibid., 95-97). Abba는 한 때 아람어가 쓰였던 레바논, 시리아, 요르단, 팔레스타인에서 아직까지도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어려서 가르쳐 주는 어휘라 한다. 요르단에서는 갓난 아이는 abba(압바), amma(암마)라고 하고 좀 더 크면 baaba(바바), maama(마마), yaa ba(야-바), yaa ma(야-마) 라고 하고 학교에 가면 abi(아비), abuui(아부이)라고 한다.

이 주 하나님을 '알라하'라고 하였고 이슬람 이전부터 '알라'라는 어휘가 존재하였다면 그 어휘는 이슬람 이전의 어휘라는 것이 분명하다.

한국에서는 이슬람의 신을 '알라'라고 하거나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사실 한국어에서 '하나님'은 유일한 인격신을 가리킨다. 이 용어 '하나님'은 1930년대 초에 완전히 확립되어 1939년 9월 제28회 장로회 총회에서 '하느님'을 배척하고 '하나님'만 사용한다는 결정을 내려졌다.[17] 그리고 약 40년간의 신학화 작업과 10여 년간의 기독교 문서의 사용 검증을 거친 후 기독교 용어로 확정되었는데[18] 인격신이 아닌 이슬람의 '알라'를 인격신 '하나님'으로 번역하여 쓰는 것이 적절한가? 다음 장에서 상세히 논하고자 한다.

2. 이슬람 이전의 아랍인의 신 개념

이슬람 이전(자힐리야) 시대에는 인간 중심(homocentric)의 사회이었다. 그래서 인간 이외의 다른 것이 들어설 수 없어 인간이 중심 개념을 차지하고 있었다. 지상에서 인간의 지위와 다른 부족과의 관계 그리고 그가 속한 부족에서 그의 지위 등이 가장 중요한 문제이었다. 물론 당시의 사람들은 인간보다 우월하고 인간에게 보이지 않는 힘 즉 알라와 진(Jinn)[19] 등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 그러나 이들의 존재는 그들의 삶에서 협소하고 제한된 관심의 영역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어휘들은 인간과 버금가는 독자적인 주요 개념적인 원리는 되지 못하였다. 그 결과 아무런 긴장의 분위기는 없었다. 그러나 이슬람이라는 새로운 세계에서는 인간과 알라 간의 의미론적 긴장이 있다. 이슬람 이전에 알라(al-ilāh, allāh)는 메카에서 하나 밖에 없는 유일신은 아니었으나 메카 인들에게 중요한 신이었다. 그 이름도 오래된 것이었다. 두 개의 남부 아랍어 비문에 그 명칭이 나타난다. 주전 5세기에 리흐얀(lihyānite) 비문에서는 'HLH'라고 쓰여졌고, 리흐얀 사람들은 그 신을 시리아에서 가져온 것이라 한다. 리흐얀은 아라비아에서 이 신을 숭배한 첫 중심지이었다. 신을 가리키는 그 명칭은 이슬람이 등장하기 5세기 전 싸파(Safa) 비문에서 할라흐(Hallāh)라는 이름으로 쓰였다. 이슬람 이전에 기독교인들의 아랍어 비문에서도 알라라는 단어가 등장한다. 그것은 요르단의 옴무 알자말(Umm al-Jamāl)에서 발견되었는데 6세기 것으로 추정된다.

---

17) 류대영, 옥성득, 이만열, 『대한 성서공회사 II』. 대한 성서공회, 1994, pp. 182.184.
18) *Ibid.*, p. 188.
19) 진은 불로 창조된 보이지 않는 피조물로서 코란 72장이 진의 장이다.

이슬람 이전의 메카 사람들은 특별한 위험에 처하였을 때 부르는 창조주로서 알라를 불렀는데 이런 내용은 코란의 구절들(31:24, 31;6:137, 109;10:23)에 잘 나타나 있다. 알라는 무함마드가 속한 꾸라이쉬 부족의 부족신이었다.[20] 자힐리야 시대와 이슬람 시대가 서로 대별되지만 알라라는 어휘를 두고 서로 완전하게 구분이 이뤄진 것 같지는 않다. 자힐리야 시대의 알라의 개념이 품고 있는 모든 관계적인 요소들 중에서 이슬람이 등장하면서 그 일부는 새로운 종교적 개념과 양립할 수 없는 것들이 있음을 무슬림들이 알았다. 그래서 이들 잘못된 개념 그리고 이 잘못된 개념을 지지하는 사람들과 꾸준히 싸워나가야 했다. 가장 못 마땅한 요소 중의 하나는 알라 옆에 다른 신을 두는 슈라카(shurakā'; 알라 자리에 다른 것을 두는 자들)이었다. 오늘날 무슬림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기독교인들을 슈라카라고 부른다. 무함마드가 이슬람의 신 개념을 정립해 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신은 하나다 그리고 당시 메카의 여러 신들 중에서 최고신이 알라라고 하였으며 그 알라는 메카의 카아바의 신이라는 것이었다. 아마도 '알라'라는 어휘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 그리고 유대인들이나 단일신 추종자(하니프)들에게 쓰이고 있었을 것이다. 무함마드는 당시 기독교인들을 삼신을 믿는 다신 숭배자로 몰아붙였다.

이렇게 다신 숭배적인 요소를 제외하면 알라의 본래 개념은 이슬람의 알라 개념과 매우 근접하였다. 그래서 코란은 여러 구절에서 그렇게 알라의 개념을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왜 이슬람을 거부하느냐고 묻고 있다. 이슬람 이전의 아랍인들이 갖고 있는 알라의 개념 중 관계적 의미를 알아보기 위하여 다음 3가지를[21] 고려해 보아야 한다.

첫째, 다신 숭배 혹은 다신 사상(pagan)[22]들이 알라의 개념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느냐 하는 것이다. 이슬람 이전의 아랍인들이 알라에 대하여 갖고 있는 의미이다. 이슬람 이전의 문학뿐만 아니라 코란 자체에서도 어떤 구절에서는 이런 의미를 찾아볼 수 있다.

---

20) Philip K Hitti, *History of the Arabs*, N.Y: ST. Martin's Press. Inc. 1970, p. 101.

21) Toshihiko Izutsu, *God and Man in the Koran*, Tokyo: The Keio Institute of Cultural and Linguistic Studies, 1964, p. 99.

22) paganism이란 단어는 기독교에서는 신을 믿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용어인데 이슬람에서는 통일된 신앙체계가 아닌 종교 사상 religious perspective이며 여러 영향에 수용적인 것으로서 많은 신들이나 영들을 섬기는 다신 숭배라 할 수 있다.
Reja Aslan, *No God But God*, Cox & wyman Ltd: Arrow Books, 2006, p. 6.

둘째, 이슬람 이전의 유대인이나 기독교인들이 그들 하나님에 대한 '알라'의 개념을 어떤 의미로 사용하였는가를 찾아보는 것이다. 이런 경우 알라는 성경의 하나님을 말한다. 그러나 이 알라는 유일신적 개념이었다.

셋째, 알라와 무함마드를 믿지 않는 다신 숭배자 아랍인들이 알라라는 이름 하에 하나님의 성경적 개념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는가하는 점이다. 가령 베두인 시인이 기독교 왕을 찬양하는 시를 지었을 때 이런 개념이 등장한다. 이런 경우 그가 의도하였건 안하였건 그가 다신 숭배자이었음에도 기독교인 시각에서 알라의 개념을 사용하였다. 이런 경우 그가 알라의 기독교적인 개념을 깊이 이해하든 피상적으로 이해하든 시인들 뿐만 아니라 그 시를 듣는 청중들에게도 상당한 영향력을 끼쳤을 것이다.

3. 아라비아 다신 숭배자들의 알라 개념

이슬람 이전의 아랍인[23]들의 종교적 시각에 나타난 알라의 개념은 아래와 같다.[24]

(1) 알라는 우주의 창조주이다
(2) 알라는 비를 내리는 자이며 지상의 모든 생물에게 생명을 주시는 자이다
(3) 가장 엄숙한 맹세의 대상이다
(4) 순간적인 단일신론의 대상이다
(5) 알라는 카아바(ka'bah)[25]의 주인이다.

---

23) 고대 아랍인들은 연대기적 구분에 따라 다음 3 그룹으로 나뉜다. 아리바(Aribah; 순수 아랍인; 소멸된 아랍인baida), 무타아리바(muta'arribah; 초기의 귀화한 아랍인), 무스타으리바(musta'ribah; 나중에 귀화한 아랍인)등이 있었다. 아리바는 노아의 자손 이람(Iram)과 라위드(lawidh)의 자손들로 순수한 아랍인들이었고 그리스도 때 이미 소멸하였다. 이들 중에는 아말렉, 아드, 사무드, 따슴, 자디스, 주르훔 등이었다. 아드가 어디인지를 불분명하여 알렉산드리아, 다메섹, 예멘들이라고 하고 사무드는 예언자 살리흐의 도시로 알려져 히즈르와 서부 알히자즈 지역의 와디 알 꾸라에 위치한다. 무타아리바는 예멘, 하드라마우트, 히즈르 이후에 거주한 아랍인들이다. 까흐탄의 아들 야으룹에 속한 것으로 알려지고 함단, 따이, 마드히즈, 킨다, 라큼, 아즈드와 갓산 들이다. 무스타으리바는 이스마엘 자손에 속한 것으로 알려지고 아리바 아랍인들 중 주르훔의 마지막 왕 무다드 븐 바시르의 딸과 혼인한 이스마일을 지칭하므로 일명 이스마일 자손(Ismailiyyah)이라고 한다. 그들은 북부 아랍인들이고 마아드, 나자르, 무다르 들이다.
Najmah sayuti, "The Concept of Allah as the Highest God in Pre-Islamic Arabia", Montreal: McGill University, 1999, pp. 14-16.

24) Toshihiko Izutsu, *op.cit.*, p. 101.

코란은 다신 숭배자들이 알라를 천지의 창조주로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말한다.

"우리(알라)가 너(무함마드)에게 계시하였다. 무쉬리쿤(우상숭배자)이 아닌 하니프(단일신 추종자), 이브라힘의 종교(Millah)를 따르라(수라 16:123)."

마땅히 그들이 알라만을 숭배하여야 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순간적인 단일신론의 대상이란 다신 숭배자 아랍인들이 살아날 가망이 없는 순간에 혹은 죽음의 위험 앞에 그리고 바다의 위험에서 알라에게 도움을 청하는 경우 순간적으로 알라가 그들의 종교가 되는 것이다. 자힐리야 아랍인들은 가장 거룩하고 엄숙한 맹세의 순간에는 알라의 이름으로 했다. 또 알라는 중앙 아라비아의 가장 귀중한 성소이었던 카아바의 주인이었다. 이것은 이슬람 이전의 시나 코란에서도 볼 수 있다.

"그들로 하여금 이 집(카아바)의 주인에게 숭배하도록 하라(수라 106:3)".

이슬람 이전의 아랍인들에게 알라는 그 집의 주인(rabb al-bayt), 카아바의 주인(rabb al-ka'bah), 메카의 주인(rabb makkah)으로 알려져 있었다. 여기서 '그 집'은 카아바를 가리킨다.

4. 유대-기독교인들의 알라 개념

자힐리야 말기에 이르면서 알라의 개념이 점차 하나로 모아지고 있었다. 다신 숭배자 아랍인은 일신론에 대한 이해를 위하여 기독교인과 유대인들에게 물어볼 필요를 느끼고 있었다. 특히 알히라(al-hira)[26]의 기독교 왕들이나 갓산(ghassaan)의 왕들을 찬미하는 시를 쓸 때 특히 더 그러하였다. 베두인 시인이었던 알나비가(al-nabighah)는 알 히라의 기독교 왕이었던 알 누으마 븐 알문디르(al-nu'mah ibn al-mundhir)를 찬양하는 시에서 알라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27]

warabba 'alayihi **'allāh** ahsana Sun'ihi wa kaana lahu 'alā al-bariyyah naaSir(알라가 그에게 가장 좋은 은총을 허락하여 그가 사람들을 이길 승리를 주었다.)

---

25) 사우디 아라비아의 메카에 있는 검은색 천으로 된 입방체의 신전
26) 이라크 쿠파를 중심으로 한 사산조의 완충 국가인 라큼 왕조의 도읍지.
27) *Ibid.*, p. 110.

자힐리야 시대에는 시인들이 갖는 사회적 지위가 아주 높았다. 시인들이 한 말 특히 아주 유명한 시인들이 한 말은 정신적인 힘을 가져 사람들이 상황에 따라 그 시인을 두려워하고 숭배하기도 하고 사랑하기도 하였다. 그들은 사회적으로 민족적으로 귀중한 자산이었다. 그 당시 시는 개인의 감정이나 사상의 표현 등의 문제가 아니었다. 시의 어구는 당시 대중들의 표현이었다. 유명한 시인들의 시적 어휘들과 말은 삽시간에 그 부족 안에 퍼지고 나아가서는 아랍 세계 전체로 펴져나갔다. 그래서 그 시인은 여론을 이끌어가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그러므로 대시인 알나비가가 사용한 '알라'라는 말은 단순히 개인이 좋아하는 용어라기보다는 기독교인이 수용하는 의미도 포함되고 간접적으로는 다신 숭배자 아랍인들의 종교적 시각을 반영하기도 하였을 것이다. 그래서 이들 다신 숭배자들에게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알라를 이해하는지 그 개념을 가르쳐주었을 것이다. 나아가서는 그가 다신 숭배자들의 신에 대한 개념을 기독교인들이 갖고 있는 하나님의 개념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거의 무의식적으로 점진적인 동일시를 꾀했을 수도 있다.

자힐리야 시대의 유대인과 기독교인의 문화적 상황을 보면 그 당시에는 아랍인들이 기독교 세력들에 둘러 싸여 있었다. 우선 아비시니아(에티오피아)가 기독교인들이었다. 아랍인들이 크게 감탄한 상당히 높은 문명을 가진 비잔틴 제국도 역시 기독교인들이었다. 갓산 왕조도 기독교 왕국이었고 단성론자들이었으며 637년 갓산 왕조의 마지막 왕 자발라(Jabalah) 2세는 무슬림 정복자들에 의하여 왕위 직을 그만 둘 수밖에 없었다. 페르시아 완충 국가이었던 알히라(al-hirah; 이라크 중남부 지역)는 페르시아 문화 유입의 주요 채널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아람어를 사용하는 네스토리아(Nestorian) 기독교가 아라비아에 스며들게 하는 주요 중심지가 되었다. 이들 네스토리아 기독교인들이 헬레니즘과 이슬람 간의 주요 연결점이 되었고 아라비아 북부의 문화적 사상이었던 아람, 페르시아, 헬레니즘의 사상을 다신 숭배가 있던 아라비아 반도 중심부에 전달하는 중간 매개체가 되었다.[28] 알히라의 네스토리아 사람들이 페르시아 국경에 사는 아랍인들에게 영향을 준 것처럼 알히자즈[29] 지역의 사람들에게는 갓산의 단성론자들의 영향을 받았다. 이슬람 이전 4세기 동안 시리안화된 이들 아랍인들은 아랍 세계를 비잔틴과 시리아를 이어주는 가교 역할을 하였다. 그리고 다우드(Dāwūd), 술라이만(sulaymān)이라는 어휘들이 이슬람 이전 아랍인들에게 사용되고 있었다.[30]

---

28) Philip K Hitti, *op.cit.*, p. 106.
29) 메카와 메디나가 있는 지역을 통틀어 일컫는 말.

아라비아의 남부에서 시작된 무슬림들을 향한 북부 아라비아의 영향력을 과대 평가해서는 안 된다. 단성론자나 네스토리우스 교회가 종교적 사상과 신앙을 전파하는데 충분할 만큼 활력을 갖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비록 이슬람 이전의 시인들이 기독교 사상과 기독교 용어에 어느 정도 익숙해 있었을지 몰라도 기독교가 북부 아라비아에 깊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였다.[31] 상당수 아람어 어휘들이 고대 아랍어 어휘 속으로 들어갔다. 자힐리야 시대의 시인이었던 알아으샤 알 아크바르(al-'a'sha al-'akbar)는 나즈란(예멘과 접경하는 있는 사우디 아라비아의 남서쪽의 도시 명)의 비숍(bishop)들과 개인적으로 절친하게 접촉을 갖고 있었다. 메카에는 기독교인 노예와 바누 아사드 븐 압둘 웃자(banū 'asad b. 'Abd al-'Uzza) 가문의 기독교인들이 있었다.

유대인들의 거류지는 메디나, 알히자즈 북부 지역의 여러 오아시스에 있었다.[32] 야스립(yathrib; 나중에 메디나로 불림), 카이바르(khaybar), 파닥(fadak), 타이마(tayma[33]), 와디 알꾸라(wādi al-Qurā) 등의 지역에 이주한 유대인들이나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 기독교가 나즈란에 기반을 두었다. 예멘과 알히자즈에 유대인이 있었을 지라도 북부 아라비아의 사람들에게는 그다지 큰 영향을 준 것 같지 않다.[34] 메카에는 실질적으로 유대인들이 없었을지라도 메카 사람들은 적어도 유대교의 기본 개념에는 익숙해 있었음이 틀림없다. 무함마드와 코란에 유대교와 기독교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무함마드 이력의 초기에 단일신 사상의 주요 근원이 유대인이나 기독교인과 직접적으로 접촉한 것이 아니고, 당시 아라비아 반도에 퍼졌던 일반적인 유대교와 기독교의 분위기 때문이었다.[35] 코란을 연대기적으로 살펴보면, 무함마드의 기독교와 유대교에 대한 이해가 그의 생애에 걸쳐 조금씩 진전된 것이 확실하다. 그가 처음에는 기독교인과 유대인들을 구분하지 못하여 경전의 백성(Ahl al-Kitab)이라고 불렀으나 나중에는 구약과 신약을 구분하기도 하였다.

알 부카리는 그의 하디스(무함마드 언행록)에서 '어떻게 계시가 무함마드를 찾

---

30) Philip K Hitti, *op.cit.*, p. 106.
31) *Ibid.*, p. 107.
32) *Ibid.*,
33) 공일주, 『이슬람문명의 이해』, 예영커뮤니케이션, 2006, pp. 204-206.
34) Philip K Hitti, *op.cit.* 107.
35) Harry Gaylord Dorman, *Toward Understanding Islam*, New york: Bureau of Publications, 1948, p. 4.

아가고 있었는가?'에 대하여 "창조하신 너의 주님(알라)의 이름으로 읽어라(수라 96:1)"라는 두렵고 이상한 영감으로 무함마드에게 내려왔다고 했다. 그런 일을 전혀 경험하지 못한 무함마드는 당황하여 불안하고 어찌할 줄 몰랐다. 이때 그의 아내 카디자는 그를 안심시켜주고 강한 확신을 주기 위해서는 권위 있는 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당시 그 권위는 그녀의 조카 와라까 븐 나우팔 븐 아사드 븐 압드 알 웃자에게서 왔다. 그는 자힐리야 시대에 기독교로 개종하였는데 히브리어로 된 복음서를 필사하였고 무함마드와 대화를 할 때에는 나이가 많아 이미 시력을 잃고 있었다.[36] 와라까 븐 나우팔은 무함마드에게 일어난 이상한 일을 들었을 때 유대- 기독교의 유일신론의 전승에 속하는 권위를 무함마드에게 주었다. 그의 말이 무함마드에게 확신을 가져다주었고 이것이 유대교와 기독교를 떠나 새로운 종교를 세워가는 단초가 되었다.

5. 하니프의 신 개념

이슬람 이전의 단일신 추종자를 하니프(hanīf)라고 부른다. 하니프라는 단어는 오랫동안 논쟁이 되어 온 어휘이다. 레바논의 이슬람학자 필립 힛티(Philip Khuri Hitti, 1886-1978)는 하니프가 나바뜨인들을 통하여 아람어에서 빌려온 차용어[37]라고 했다. 시리안어 'hanpa'(다신 숭배하는 이단, pagan heretic)에서 유래되었다고 한 것이다. 어원론적으로 이 단어는 애매모호하여 그 기본적인 의미를 확정하기 매우 어렵다. 하니프들은 금욕적인 수도 생활을 하고 묵상을 통하여 초월적인 현상을 설명하고자 하였다.[38] 코란에서 하니프라는 단어는 특히 메디나 수라에서 여러 차례 다신 숭배자를 가리키는 무쉬리쿤(mushrikūn)이라는 단어와 대조적으로 쓰인다. 하니프라는 단어는 코란에서 이브라힘의 이름과 관련되기도 한다.

> 이브라힘이 하니프이었고 유대인도 기독교인도 아니었으며 무쉬리쿤도 아니었다(수라 30:30).

코란은 이브라힘의 이름과 관련된 이 일신교가 참 종교라고 말하고 있다. 그런

---

36) Muhammad Muhsin Khan, *Summarized sahih al-Bukhari,* al-Medina: Maktaba Dar Us-Salam, 1994, p. 51.

37) Philip K Hitti, *op.cit.*, p. 108.

38) Najmah Sayuti, *op.cit.*, p. 13.

데 코란은 이브라힘(아브라함이라고도 함)이 유대인도 아니고 기독교인도 아니고 무슬림이라고 한다. 무함마드는 자신의 정체성을 하니프와 연결 지으면서 당시 여러 신들 중에서 오직 한 분의 알라를 믿는다는 단일신 개념을 세워나갔다. 그는 이브라힘을 하니프라고 규정짓고 이브라힘이 메카의 카아바 신전을 건설하였다고 하였으며 오늘날 전 세계 무슬림들이 메카 순례를 하는 이유는 이브라힘을 기억하기 위함이다.

이슬람 이전의 아랍인들 중에서 하니프와 관련되어 알려진 사람들 중에는 우마이야 븐 아비 알 쌀트('Umayyah b. 'Abī al- Salt; 624)[39]와 무함마드의 부인 카디자의 조카인 와라까 븐 나우팔이 있다.[40] 그런데 일부 작가들, 역사가들, 그리고 유럽의 신학자들은 하니프들이 아리우스 파(Arian)에 기원한다고 하였다. 즉, 그들이 아라비아와 여러 지역으로 흩어져 나즈드와 알히자즈[41] 지역으로 이동한 것은 유대 성전이 무너진 주후 70년 이후[42]라고 주장한다. 와라까 븐 나우팔은 네스토리우스 교회 의전(Taqs)을 아랍어화하고[43] 하니프[44]이었으며, 당시 하니프들은 할례를 행하고 알바이트(메카)를 방문하는 순례를 행하였다.[45]

우마이야 븐 아비 알 쌀트는 자힐리야 문학에서 독보적인 시인이었다. 그는 따이프(Tayf)에 사는 사끼프(Thaqif) 부족의 시인이었다. 이슬람의 하디스에서도 그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그와 무함마드는 특별한 관계를 갖고 있었다. 그는 자힐리야 시대에 참 종교를 추구하는 시인으로 알려져 있다. 그가 무쉬리쿤도 아니었고 유대인도 아니고 기독교인도 아닌 반체제 인사와 같았다. 그러나 그가 살아온 신앙적 분위기를 보면 그는 유대인에 가까웠다. 그의 기독교와 유대적인 배경은 예멘에 기원한다. 그는 히브리어와 아람어를 공부하였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며 이

---

39) 무함마드의 두 번째 조카이다.

40) Philip K Hitti, *op.cit.*, p. 108.

41) 나즈드(najd)는 현재 사우디아라비아의 중앙에 위치한 고원지대(762-1525 m)로 서쪽에는 알히자즈 지역과 예멘이 경계하고 동쪽에는 바레인이 경계를 이루고 있으며 리야드가 가장 큰 도시이다. 알히자즈(hijāz)는 서쪽의 티하마(tihāmah)와 동쪽의 나즈드를 분리하는 장벽이란 이름에서 유래하고, 아까바만에서 지잔(Jizan)에 이르는 남북으로 길 다란 홍해 연안 지역이다. 젯다가 큰 도시이고 이슬람의 성지 메카와 메디나가 위치한 지역이다.

42) Husein al-'ūdāt, *al-Arab al-Nasārā*, Dimashiq: al-ahali, 1992, p. 25.

43) Tharwat Qadis, *al-Kitāb al-muqaddas fi al-tārikh al-arabī al-mu'āsir*, al-qāhirah: dār al-thaqāfah, 1999, p. 22.

44) *Ibid.*

45) Husein al-'ūdāt, *op.cit*, p. 24.

들 언어로 쓰인 성경을 읽었다. 전승에 의하면 그는 거친 천으로 만든 옷을 입고 다녔고 술을 금하였으며 이브라힘이나 이스마일처럼 하니프 종교를 추구한 사람으로 알려진다. 그는 아랍인들 중에 예언자가 세워질 것을 확신하고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6명의 예언자가 있는데 5명은 이미 세상에 알려졌으나 나머지 한 사람이 남았는데 그 예언자가 자신이기를 고대하고 있었다. 그의 말이 사실인지 무함마드가 아랍인들의 예언자임을 자처하고 역사에 등장하자 그는 실망하여 이슬람을 거부하는 캠페인을 벌였다. 그는 메카의 꾸라이쉬 사람들을 선동하여 무함마드 반대 운동에 나섰고 우후드('Uhud; 625년) 전투에서 살해된 다신 숭배자들을 애도하는 시를 쓰기도 하였다. 이 전투 중에 외가의 사촌 우트바('utbah)와 샤이바(Shaybah)가 죽임을 당하였는데, 그의 부족들을 권하여 무함마드에게 복수하여달라고 하고서는 그는 예멘으로 돌아갔다. 그는 죽을 때까지 무함마드에 대한 반목적인 태도를 버리지 않았다.[46]

> 이 병이 나를 죽게 하는 도다. 나는 하니프가 참된 종교인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무함마드에 대한 의심이 나에게 있다.

이런 하니프의 알라에 대한 이해는 무슬림들의 알라에 대한 이해와 다르지 않다. 이슬람 이전에 이슬람을 닮은 종교적 사상이 있었는데 그것이 하니프이다. 이슬람이 하니프와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하니피야(Hanīfiyyah; 하니프를 따르는 사람들의 종파)들은 강력하게 조직된 운동은 아니었다. 그것은 다신 숭배 사회에서 하니프들이 서로 뿔뿔이 흩어져 있었기 때문이다.

Ⅲ. 코란과 타우히드

이슬람 이전에 알히자즈(메카와 메디나의 주변) 지역은 베두인의 대표적인 환경이었다. 베두인의 사고방식은 이성적 깨달음보다는 삶에 육감적이고 물질적이었다. 그래서 그들을 종교 생활로 초대하는 일은 오랜 시간이 걸리는 일이었다. 한마디로 이슬람 이전에는 사람들이 종교적 침체기에 빠져 있었다고 말할 수 있다. 코란에서 신구약을 보라고 하는 무함마드의 초대가 있었고 유대 공동체와 기독교가

---

46) Toshihiko Izutsu, *op.cit.*, p. 114.

아랍인들에게 경쟁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었다.[47] 그러자 알히자즈 지역과 메카에서 우상숭배(paganism)가 사라지고 타우히드(Tawhīd;단일신론)가 퍼져가고 있었다. 당시 아라비아 반도 특히 예멘과 알히자즈 지역과 북부지역에는 유대인과 기독교 이외에 이들과 별도로 아랍 사람들을 타우히드로 초대하고 있었다.[48] 이런 모든 것들이 이슬람의 등장을 도왔고 점차 메카와 메디나 그리고 알히자즈 지역까지 퍼져갔다.

1. 예멘의 <랍브 알사마와트>와 <알라흐만>

예멘에서는 유대인과 기독교인들의 아라비아 남부로 들어 온 이후에 예멘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어 다음 두 가지 타우히드 신앙이 있었다. 하나는 별들과 달과 태양 숭배를 버리고 하늘의 신(rabb al-samā')을 섬기는 것이었다. 한 분의 신에 대한 숭배를 요구하였는데 그 신의 이름이 '랍브 알사마'이었다.

두 번째는 예멘에서 유일신의 이름으로 자비(al-rahmah)의 의미를 가진 '알라흐만'(al-rahmān[49]; 자비한 자)이 있었다. 출애굽기 34:6에서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라고 하여 여호와 하나님이 자비롭다고 한다. 유대인과 기독교인들의 영향을 받은 알라흐만에 대한 신앙은 점차 발전하였고[50] 신에 대한 숭배가 알라흐만이라는 이름으로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코란은 알히자즈 지역에 알라흐만 숭배자들이 있었음을 전해준다.

2. 메카와 알히자즈 지역의 <알라>

메카와 알히자즈 지역에서는 이슬람 이전에 '알라'숭배가 일어나고 있었다. 이는 코란과 하디스와 자힐리야의 시에 잘 나타나 있다. 자힐리야 때에는 '알라'가 코란의 신 이름으로 자리 잡기 전이고 이슬람의 신 이름도 아니었다.[51] 알라는 무함마드 이전에 알히자즈 지역에 퍼진 지고하신 절대신(al-jalālah)의 이름이었다. 알라는 하늘과 땅의 창조주이었다. 무함마드가 태어나기 전에 그의 가정에 '알라'

---

47) Yusuf Durrah al-Haddad, *al-Quran wa-al-Kitab*, Lebanon: al-maktabah al-bolisiyyah, 1982, p. 120.

48) *Ibid.*

49) al-rahman에서 마지막 글자 /n/은 남부 아랍어에서 정관사로 사용되었는데 이 /n/은 알히자즈 아랍인들에게는 정관사 "al-"에 해당하는 자음이었다.

50) Yusuf Durrah al-Haddad, *op.cit.* p. 122.

51) *Ibid.*, p. 123.

숭배가 있었다. 천사들을 숭배하는 '무쉬리쿤'들과 대조적으로 코란은 한 분의 신을 믿는 메카와 히자즈 지역 사람들의 신 '알라'를 언급한다.

3. 북부 아라비아의 <알라힘>과 <랍브 알바이트>, <랍브 알라민>

요르단의 페트라에서 시리아의 팔미라에 이르는 북부 아라비아에서는 독자적인 단일신 신앙이 있었는데 이들 신 이름들이 코란에 모두 사용되었다. 코란에 이름이 언급된 사비교[52]의 자료에는 '알라힘'(al-rahīm: 자애로우신 분) 숭배가 나온다. 사프와(Safwa) 자료에도 이 단어가 등장하는데 그들의 언어에서는 정관사가 'hā'이었기 때문에 'h r h m'이라고 쓰여 있었다. '알라힘'의 숭배는 '알라흐만'의 숭배와 같았다. 오늘날 시리아에 가면 기독교인들이 기도할 때 liannak al-ilāh al-rahīm(왜냐하면 자애로운 신이기 때문입니다)이라고 하여 라흐마(자비)가 그분에게만 있다고 강조한다. 알라힘은 코란의 '비스밀라히 알라흐만 알라힘'(자비롭고 자애로운 알라의 이름으로)에서 형용사로 쓰이고 있다.

아라비아의 남부에는 나즈란의 카아바[53]가 있었고 알히자즈에는 메카의 카아바, 나바뜨 아랍인들에게는 페트라의 카아바 등이 있었는데 '랍브 알바이트'라는 별명하에 '두 알 샤라'(dhū al-sharā)를 숭배하고 있었다. 두 알샤라는 아람어 두 사라(dū shārā)에서 온 말이다. 나바뜨인, 그리스인, 로마인들의 자료에도 등장하는 어

---

52) 중동에서는 만다아 Mandaeans 들이 숩바subba(단수형 숩비subbi)로 더 잘 알려져 있고 그 이유는 코란에 사비sabi'un(영어로 Sabians; 전향자란 뜻) 이란 어휘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브라힘, 무사, 이싸. 무함마드는 거짓 예언자들이라고 규정하고 만다아들은 세례요한을 알라의 가장 존경받는 메신저로 믿는다. 사비들은 영지주의 사비와 비영지주의 사비 둘로 나뉜다. 지면에서 인간의 죄들을 깨끗하게 하기 위하여 누흐의 홍수가 있어서 그 홍수기간에 물에 잠긴 것을 되풀이하기 위한 지금도 사비들은 물 속에 몸을 침수시키는 것을 반복한다. 아랍어 어휘 "사비"는 사바아(한 종교를 그만두고 다른 종교에 입문하다)라는 단어에서 파생되었다고 한다. 사비들은 무함마드 이전에 존재하였고 시편을 읽었다고 이슬람은 전한다. 유대교에 가깝다고 하나 전혀 다르다. 신앙고백이 "알라 이외에는 신이 없다"다. 이들은 만다아(manda')로 알려져 있는데 만다아는 아람어이고 히브리어로는 맛다아(madda') מַדָּע,נמ에서 왔다. 다니엘서 2:21(지혜자에게 지혜knowledge, reasoning를 주시고) 5:12(다니엘의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Knowledge과 총명이 있어)에서 라는 말과 연관되어 있다. 만다아들은 스스로를 영지주의자로 여기나 윤리에서 서로 다르다. 사비 교는 만다아 사람들의 종교이다. 아담, 누흐, 세례 요한을 예언자로 믿는다. 이라크 남부와 이란의 쿠제스탄에 주로 산다. 가장 위대한 스승은 세례요한이고 성직 계급이 있다. 주일 예배를 드린다. 무슬림들은 이들을 사비이아라고 부른다. 현재 만다아 교는 이라크에서 종파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53) 카아바는 순례객이나 방문객이 가는 곳이란 의미일 수 있다.

휘이다. 메카의 카아바에 있던 흑석처럼 집에 모셔두었다. 원래는 높은 바위 위에 모셔둔 신이었고 매년 12월 25일 카아바로 순례를 갔다[54]고 한다. 무슬림들은 카아바 숭배가 원래는 우상숭배이었는데 사람들이 쉬르크(다신 숭배)로 여기다가 나중에는 단일신론(Tawhīd)로 발전한 것이라고 한다. 팔미라(아랍어로는 타드무르 tadmur)에서는 코란에 언급된 '랍브 알알라민'을 숭배하고 있었다. 이 어휘의 동의어들로는 알알리(al-'alī; 지고한 자), 말리크 알아바드(mālik al-'abad; 영원의 주인), 알라흐만, 알라힘 등이 있다. 325년 니케아 공의회에 팔미라의 주교 마리누스가 참여하였고 아랍인들은 팔미라와 알히라[55] 그리고 알히자즈 지역들을 왕래하였다. 알히자즈에 '알라 아크바르'라는 표현이 셈족 아람인들 사이에 널리 쓰이고 있었다. 원래는 랍벨(rabbel)이라고 하였고 아랍어는 '알라 카비르'(신은 위대하다)이었다.[56] 이사야서와 욥기에 이런 표현이 나오고 알히자즈 사람들과 코란에서는 '알라 아크바르'(알라가 더 위대하다)라는 말로 번역되었다. 알라 아크바르라는 말은 무슬림들의 기도에 늘 되 뇌이는 말인데, 알라와 나머지 실재 사이, 그리고 알라 자신과 인간이 알라에 대하여 말하는 모든 것 사이에서 알라가 더 위대하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다.[57]

4. 코란의 알라 개념

코란에 의하면 알라는 최고의 신이고 단일 존재이다. 코란의 세계는 신중심주의이다.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인간이건 인간이 아니건 모두가 알라의 피조물이다. 모든 피조물들은 알라보다 한없이 열등한 존재들이다. 알라는 피조물의 중심에 있다. 이런 의미에서 알라와 버금가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 알라는 코란의 어휘들 중에서 가장 높은 핵심어휘이다. 모든 어휘들을 주재하는 것이다. 무함마드의 알라에 대한 개념은 오늘날 모든 무슬림들이 이슬람 신앙을 고백하는 샤하다(shahādah)와 코란에 잘 나타나 있다.

---

54) Yusuf Durrah al-Haddad, *op.cit.*, p. 125.

55) 알 히라(al-hirah)는 이라크 중앙에서 약간 남쪽에 위치한 도시이며, 이슬람 이전의 역사 자료에 아주 등장한 옛 도시명이다. 현재는 쿠파 남쪽에 위치하고 있다. 5-6세기 라큼 왕조(Lakhmids)의 수도이었다. 라큼 왕조는 사산조의 완충 지대 역할을 하였고 당시 시리아에 세워진 갓산(Ghassanids) 왕조는 비잔틴 제국의 완충 국가이었다. 혹자는 이라크 북부에 있는 하트라(Hatra)가 최초의 아랍 국가라고 한다.

56) Yusuf Durrah al-Haddad, *op.cit.*, p. 126.

57) Karen Armstrong, *A History of God*, pp. 149-150.

라 일라하 일라 알라(lā 'ilāha 'illa 'allāh): 알라 이외에 신이 없다
메신저(사성; 무함마드)에게 순종하는 자마다 이미 알라에게 순종한 것이다.
(수라 4:80).

이 구절에 대하여 코란 주석가 알꾸르뚜비는 메신저는 무함마드를 가리키는데 무함마드에게 순종하는 자는 이미 알라에게 복종한 자이고, 무함마드에게 불순종한 자는 알라에게 불순종하는 자라고 말한다.[58] 무함마드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알라가 무함마드를 그들의 보호자로 보내지 않는다고 코란은 강조한다. 메카 사람들이 숭배한 여러 신들을 거부한 무함마드는 알라 이외에는 신이 없다고 했다. 알라는 무슬림들에게 신에 대한 고유 이름이었다. 이슬람 이전에는 알라가 전체 아랍인들의 어휘 뭉치에서 어느 한 가장자리를 차지하였으나 이슬람의 등장으로 알라가 모든 코란 어휘의 중심에 자리하게 되었다.[59]

너희들의 신은 한분 신이고 알라흐만 알라힘 이외에 신이 없다(수라 2:163).
알라는 그 분 이외에 신이 없다고 증거한다(수라 3:18).
너희들의 신은 한 분의 신이다(수라 16:22).
그 분은 알라인데 그 분 이외에는 신이 없다(수라 59:22).
알라, 영존하시고 피조물을 생존케 하는 그분 이외에 신이 없다. 그는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며 하늘들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그에게 속해있다 (수라 2:255).

'알라'만이 신이라고 강조하는 코란에는 알라의 성품(nature)에 대한 개념들이 광범위하게 서로 달랐다.[60] 무함마드의 신앙고백에는 알라에 대한 두려움이 필수 요소이었다. 이슬람 이전에 알라는 메카 사람들에게 희미하게 멀리 떨어진 존재이었다. 그러나 무함마드는 알라가 목에 있는 경동맥보다 더 가깝다[61]고 했다(수라 5:16). 메카 사람들은 알라를 주저 없이 무시하기도 하였으나 무함마드는 알라가

58) http://quran.al-islam.com/Tafseer/DispTafsser.asp?l=arb&taf=KORTOBY&nType=1&nSora=4&nAya=80
59) Toshihoko Izutsu, *op.cit.* p. 41.
60) H. A. R, Gibb and J. H. Kramers, *op.cit.* p. 34.
61) 문맥상으로 볼 때 이 구절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내적이고 인격적인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악한 생각들을 아시기 때문에 인간이 조심해야 한다는 것이 분명하다.(요하힘 그닐카, 『성경과 코란』, 오희천 옮김, (서울: 중심, 2005), 110-111)

질투하고 복수하는 신으로, 종국에는 이 신에게서 심판을 받는다[62]고 믿었다.

무함마드는 알라의 가장 뛰어난 이름들(al-'asmā' al-husnā)을 사즈으(각운이 있는 산문) 문체를 통하여 그 특징을 기술하였다. 가장 뛰어난 이름이란 말이 코란에 여러 차례 등장한다(수라 7:180; 17:110; 20:8; 59:24). 이 이름들은 알라에 대한 무함마드의 인식을 가장 직접적으로 표현해 주고 있다.

알라의 뛰어난 이름들은 코란(86개), 하디스(99개), 알티르미디(al-tirmidhī, 100개), 알가잘리(99개) 등의 분류에 따라 그 단어들의 수효가 각각 다르고 이들 이름이 확정된 데에는 특별한 규칙이 없다. 타프시르 알잘랄라인(Tafsīr al-Jalalayn)에는 알라의 뛰어난 이름이 99개라 하였으나 실제 코란에서는 이 수효보다 더 많다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었는데 무함마드 븐 알나와위(Muhammad bn al-Nawawī)는 어느 수피 무슬림 종단이 알라가 1,000개의 이름을 갖고 있다고 하였다.[63] 사실, 오늘날 무슬림들이 사용하는 염주는 33개씩 되어 있어 3번 반복하면 99개 알라의 이름 모두를 되뇌게 된다.[64] 일부 알라의 이름들은 코란에서 그대로 나타나 있지 않고 일부는 동명사형에서 파생되었거나 일부는 신학적 표현에

---

62) S. M. Zwemer, op.cit. 48.
코란에는 죽음의 시간과 심판의 날 사이에 죽은 자의 영혼은 무의식(unconscious)이라고 하였는데 이런 특징은 네스토리우스 파들이 갖는 신앙과 같아 여러 정황들로 볼 때 무함마드에 대한 기독교 영향은 네스토리우스 파의 영향인 것 같다. 당시 알히라의 네스토리우스 파와 나즈란의 네스토리우스 파들이 메카에 와서 그곳에 기독교적 영향을 주었다(Harry Gaylord Dorman, op.cit. 5).

63) Abd al-Masih, Who is Allah in Islam, (Villach: Light of Life, 1999), 83-84.

64) Merciful, Compassionate, King, Most holy one, peace, Faithful one, Protector, Unique & Might one, Super strong one, Supreme or proud one, Creator, Maker, Fashioner, Forgiving one, Dominant, Bestower, Provider, Opener, Omniscient, Restrainer, Spreader, Abaser, Exalter, One who exalts & raises to honour, Destroyer, All-hearing one, All-seeing one, Ruler, Just, Subtle one, Aware one, Clement, Grand one, Most forgiving one, Grateful one, Exalted, Great one, Powerful Guardian, Strengthener, Reckoner, Majestic, Pure & Generous one, Watcher of all, Approver, Comprehensive, Ultimately Wise, One who shows sympathy, Most Glorious one, Raiser, Witness, Right & the Truth, Advocate, Strong, Firm, Friendly Protector, Praiseworthy one, Counter, Beginner, Restorer, Quickener, Killer, Living, Subsisting, Finder, One glorified, One and Only, Eternal, Mighty & Powerful, Prevailing one, One who brings Forward, Deferrer, First, Last, Outwardly Manifest & Evident one, Inward, Governor, Exalted, Righteous Benefactor, One who causes & receives, Avenger, Pardoner, Kind & Indulgent one, Ruler of the Kingdom, Lord of all majesty& Honour, Equitable one, Collector, Rich one, Enricher, Giver, Withholder, Distresser, Profiter, Light, Guide, Incomparable Magnificent one, Enduring one, Inheritor, Director, Patient one(Abd al-Masih, Who is Allah in Islam, 85-87)

근거하여 알라의 이름들로 모아 둔 것이다. 또 이들 99가지 이름들이 코란에 나오는 모든 알라의 이름들을 다 쓴 것이 아니다. 단지 무슬림들이 보기에 가장 좋은 이름들 즉 부정적인 의미를 갖는 이름들은 제외되고 뛰어난 이름들만 적어 둔 것이다. 가령 알라는 방해한다(disturbing), 위선자를 속인다(deceive), 약삭빠르게 의표를 찌르다(outwit), 불신자를 파멸의 길로 타락하게 한다(astray) 등은 알라의 99가지 이름에 빠져 있다.[65] 독일인 이슬람학자 압둘 마시흐가 분석한 바에 의하면 알라의 99가지 이름을 비슷한 속성들끼리 모아보니 자비와 용서, 전지, 능력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이들 속성들이 전체 이름들 중에서 81.75%를 차지했다. 압둘 마시흐가 인용한 잘랄 아부 다우드(Jalāl Abū Dāud)의 알라 이름들에 대한 분류와 각 항목별 비율은 다음과 같다.

(1) 알라의 존재와 영원 (1.75%)
(2) 알라의 단일성(1.75%)
(3) 알라의 능력, 전능(21.83%)
(4) 알라의 영광, 완전함(3.9%)
(5) 알라의 전지, 아시고 보신다(25.66%)
(6) 알라가 원하는 것에 대한 절대적 의지(10.4%)
(7) 알라는 피조물의 창조주(1.13%)
(8) 모든 것을 소유하고 근원이 됨(2.15%)
(9) 알라가 피조물에 대한 보호와 관심(1.9%)
(10) 알라는 친절하고 참으심(2.71%)
(11) 알라는 자비와 용서함(34.26%)
(12) 알라는 벌을 주고 심판한다(1.2%)
(13) 알라가 다른 존재와 구별됨(0.64%)

코란에서 무함마드가 언급한 알라의 뛰어난 이름들(수라 7:179; 17:110 ;20:8 ;59:23-24)의 주요 특성들을 위와 같이 큰 항목별로 나눠 살펴보면 주로 알라의 자비하심[66]과 알라의 전능하심 그리고 알라의 전지하심이 주요 내용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에 성경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과 구속하심,

---

65) Abd al-Masih, *Who is Allah in Islam*, p. 89.

66) "이슬람의 종교는 자비의 종교"(دين الاسلام هو دين الرحمة)라고 한다(2008.11.31 알두스투르 신문, Awdah abu Awdah의 글 "비스밀라히 알라흐마니 알라힘의 코란 설명의 비밀").

영광에 대한 속성들은 99가지 알라의 이름들 속에서 찾아볼 수 없다. 또 이들 이름 속에는 알라를 거룩, 빛, 평화라는 말로 정의되는 것도 찾을 수 없다.[67] 물론 99가지 알라의 이름 이외에 알라의 다른 속성들이 코란에서 발견되기도 한다.

Ⅳ. 결론 및 제언

사실 초기 무슬림 해석학자들은 주저 없이 코란에 쓰이는 많은 종교적 어휘가 유대교와 기독교에 기원을 둔 것으로 인정하였다. 어원론적으로 보면 알라(Allāh)는 그 어원이 기독교 시리안어(Syriac)에서 왔고 무함마드 시절 이전부터 사용되었다. 시리안어(syriac)는 예수가 사용한 아람어(Aramaic)의 자매어이다.[68]

음성학적으로 보면, 알라(Allāh)는 한글에서 발음되는 것처럼 '알라'라고 발음하지 않고 /ll/이 강세음화되어 발음된다. 강세 자음이 들어 있는 알라/ʔɑllɑh/에서 해당 강세자음은 으뜸 조음이 치경이나 치간이고 버금조음이 인두에서 이뤄지므로 구강의 전방지역에서 혀끝을 포함한 제1차적 좁힘과 그리고 목젖소리와 인두음이 나는 자리 사이의 인두에서 뒷 혀가 제2차적으로 후진 하향 운동하는 것이 그 특징이다.[69] 아랍어 강세 자음의 후진 성향의 크기는 다음절어 전체에 영향을 주어 아랍어 강세자음의 우-좌 방향(선행방향)과 좌-우 방향(후행방향) 모두에 영향을 준다. 그러나 우-좌 방향의 강세음화가 좌-우 방향 강세음화보다 더 강하다.[70] 오늘날 이슬람국가에서는 이런 강세음화 현상이 없이 발음하는 것은 기독교인들의 발음이고 강세음화가 있게 발음하는 것은 무슬림들의 발음이라고 하나 무슬림들도 구별 없이 발음하는 사람들이 많다.[71] 알라라는 단어를 형태론적으로 분석하여 보면, 일부 이슬람 학자들에게는 allāh=al+'ilāh라고 하여 'ilāh가 신(god)이고 그 단어에 정관사 /'al/이 접두되면 the god=God이 된다고 설명한다.[72]

---

67) H. A. R, Gibb and J. H. Kramers, *op.cit.*, p. 34.

68) Kenneth E. Bailey, *op.cit.*, p. 12.

69) 공일주, 『아랍어 음성학』, 송산출판사, 1993. p. 139.

70) *Ibid.*, 145.

71) 그러나 실제로 이집트에서 온 무슬림에게 어떻게 발음하는지 물어보니 그는 가볍게 기독교인들처럼 발음하다가 다시 물으니 무슬림들의 강세음화된 발음이 맞다고 하였다.

72) 사우디아라비아의 국기에는 이슬람의 신앙고백이 칼 그림과 함께 쓰여 있는데 그것은 아래와 같다. "Allāh 이외에 'ilāh(신)이 없고 무함마드는 알라의 메신저이다".

역사적으로 보면, 서기 450년경부터 이슬람이 시작되는 610년까지 전해 내려오는 종교시에도 '알라'라는 단어가 언급되고 있었다.[73] 알라라는 단어가 알나비가(al-nābighah)와 같은 자힐리야 시대의 시인들에게서 자주 언급되어 특히 알무알라까(al-mu'allaqat)[74] 시집에는 이 단어가 자주 등장한다. 알무알라까에는 알라는 주시는 자, 존재케 하시는 자, 장수케 하시는 자로 나와 있다.

카아바(ka'bah)는 메카 순례객들의 연례적인 순례의 중심지이었고 카아바를 알라의 집(the House of Allah)이라고 불렀다. 이브라힘의 종교이었던 하니프들은 메카의 카아바를 순례하고 있었다. 하니프들은 사람들에게 하나의 신, 알라를 예배하라고 가르쳤다. 말하자면 당시 여러 지역에 있던 신들을 제치고 '알라'를 중심으로 통일할 것을 요구하였던 것이다. 10세기에 이븐 하즘(ibn Hazm)은 『종교들과 이단들과 종파들의 분별』(al-fiSal fi al-milal wa-al-'ahwa' wa-al-Nihal)[75]이란 책에서 아랍인들이 천사들과 후르 아인[76]을 숭배하였다고 전한다.

텍스트적인 측면에서 보면, 오스만 코란 정경본이 653/654년 경[77]에 확정되었고 코란의 아랍어 자음과 모음에 대한 표기는 7세기와 8세기를 거치면서 완성된다. 사실 이슬람 역사에서는 아랍어 글자 체계에 구별점(자음을 표시할 때 자음 위아래에 점을 넣음)이 도입된 것은 우마위야 왕조의 이라크 통치자 알핫자즈 븐 유수프(Al-Hajjāj ibn Yūsuf; 661-714) 시절[78]이다. 아랍어 자음에 쓰인 구별점들은 아람어에서 따왔다. 코란은 무함마드 당시 구두로 전달되었고 15개의 글자로 28개의 소리(음소)를 표현하여 이런 불완전한 글자 체계는 의미상 변화없이 코란이 그대로 전해 내려오는데 여러가지 문제가 있었을 수 있음을 암시한다.

신학적인 측면에서 보면, 코란의 주요 메시지 중 하나는 타우히드(단일신론)이다. 무슬림들의 알라에 대한 정의를 보면 알라는 창조주, 전능하신 분, 전지하신 분으로 알려진다. 아랍 기독교인들은 창세기 1장 1절의 하나님은 알라(Allah)라고 하고 창 2:4과 창 3:1의 여호와 하나님은 '알랍브 알일라흐'(al-Rabbu al-'ilāh) 혹

Allāh와 'ilāh를 구분하고 있다.

73) Najmah Sayuti, *op.cit.*, p. 7.

74) 카아바 신전 벽들에 걸려있는 것들이란 의미에서 나온 명칭이다.

75) Ibn Hazm, *Al-fiSal fi al-milal wa-al-'ahwa' wa-al-Nihal*, Part 2. Beirut: Dar al-kutub al-'ilmiyyah, pp. 278-281.

76) 후르 아인Hur 'ayn은 잔나jannah에서 알라의 아울리야(알라가 선택한 자들)들을 위하여 창조된 여성들로 알라에게 복종하고 장수한다(Ibn Hazm, *Ibid.*, 281)

77) http://en.wikipedia.org/wiki/Origin_and_development_of_the_Qur%27an 참조

78) 공일주, 『아랍어 음성학』, p .131.

은 '알랍브'(al-Rabb)[79]라고 번역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알라'로 그리고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구속의 하나님은 '알랍브'로 번역한 것이다. 그러나 무슬림들은 언제나 그들의 신을 알라(Allah)라고만 부른다. 무슬림의 알라가 성경의 하나님과 똑같은 신이라고 얼른 결론을 내리기 쉽다. 오늘날 아랍 무슬림들도 이 질문에는 서로 다른 답을 내놓는다. 기독교와 무슬림과 유대인들이 한 분의 신을 믿는다고 해서 동일한 신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압둘 마시흐는 이슬람의 알라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 이슬람에는 아버지도 아들도 성령도 없다. 아버지 하나님의 돌보시는 보호도 없고 전능자와 인격적인 접촉도 없고 모든 죄악을 사함 받은 확신도 없고 성삼위일체를 깨달을 가능성도 없고(고전 12:3; 롬 8:8-10; 15-16 등), 성령의 열매도 없고(갈 5:12-26), 영생에 대한 확실한 소망도 없다(요 11:25-26, 벧전 1:3; 계 1:7-18). 성령이 없는 곳에는 영적인 생각도 없고 영적인 삶도 없다.[80]

> 이슬람은 단일신의 신 개념을 너무 강조한 나머지 삼위 일체론적 신 개념과 반대의 길을 걸었다. 그리고 신의 비공유적 속성과 공유적 속성[81]을 받아들이는 기독교 신관과는 달리, 이슬람의 신관은 공유적 속성을 거절하고 있다. 코란에서는 알라를 영이라고 하지 않고, 알라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도 하지 않으며, 알라는 아버지라고도 부르지 않는다. 기독교인과 무슬림들이 같은 신을 섬기는가에 대한 질문에는 반드시 '예, 아니오'라고 대답해야 하는 함정이 있다. 여기서 이 질문을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몇 가지로 나눠 생각해 보아야 한다. 첫째, 기독교인들의 하나님에 대한 개념(idea)과 무슬림들의 알라에 대한 개념은 같은가? 둘째, 기독교인의 하나님에 대한 개념과 무슬림의 알라에 대한 개념에는 공통점이 있는가? 셋째, 코란에서 사용된 알라의 개념이 성경에서 사용되는 여호와 하나님과 동일하게 사용될 수 있을 만큼 둘 사이에 공통점은 충분한가?[82] 그러나 분명한 것은 코란의 알라와 성경의 하나님 사이에는 공통점

---

79) 20세기 후반에 중동 성서 공회 이름으로 발간된 "아랍어 공동번역(al-tarjamah al-arabiyyah al-mushtarakah)은 엘로힘은 "알라"로, 여호와는 "알랍브"로 번역하였고, 2002년 아랍 무슬림들을 대상으로 번역된 "알키탑 알샤리프"는 엘로힘과 여호와 모두를 "알라"로 번역하고 있다.

80) 압둘 마시흐, 『무슬림과의 대화』, 이동주 옮김, 기독교 문서 선교회, 2001, p. 22.

81) 비공유적 속성은 영원성, 무한성과 같이 하나님에게만 있는 속성이고 공유적 속성은 지혜 공의와 같이 상대적 혹은 제한적 의미에서 인간에게서도 발견될 수 있는 속성이다. 공유적 속성을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것은 인류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이다(찰스 C. 라이리, 『평신도 신학입문』, 이한규 옮김, 두란노, 2002, p. 46).

도 있고 차이점도 있다는 점이다. 알라는 꾸라이쉬 부족이 섬기던 최고신(supreme god)으로서, 무함마드는 당시 메카와 알히자즈 지역에서 일부 사람들이 숭배한 '알라'를 코란의 중심 개념으로 끌어 올렸다. 무함마드의 알라 개념은 이슬람 이전의 하니프를 믿는 이브라힘의 단일신론을 승계한다.

"우리의 신과 너희의 신이 하나다(수라 29:46)"

코란의 알라는 절대로 타협할 수 없는 단일신론과 이슬람이란 독특한 종교적 환경 안에서 성경과는 매우 다른 개념으로 형성되어갔다.

주제어 : 타우히드(단일신론), 알라, 신

82) Colin Chapman, *Cross and Crescent*, Downers Grove: IVP. 2007, p. 243.

참고문헌

공일주, 『이슬람문명의 이해』, 예영커뮤니케이션, 2006.

공일주, 『아랍어 음성학』, 송산출판사, 1993. p. 139.

라이리, 찰스 C. 『평신도 신학 입문』, 이한규 옮김, 두란노, 2002.

류대영, 옥성득, 이만열, 『대한 성서공회사 II』. 대한 성서공회, 1994, pp. 182, 184.

압둘 마시흐, 『무슬림과의 대화』, 이동주 옮김, 기독교 문서 선교회, 2001, p. 22.

요하힘 그닐카, 『성경과 코란』, 오희천 옮김, 중심, 2005, pp. 110-111.

al-'ūdāt Husein, *al-Arab al-Nasārā,* Dimashiq: al-ahali, 1992.

Armstrong Karen, *A History of God,* New York : Ballantine Books, 1993.

Aslan Reja , *No God But God*, Cox & wyman Ltd: Arrow Books, 2006

Bailey Kenneth E., *Jesus Through Middle Eastern Eyes,* Downers grove: IVP press, 2008.

Ibn Hazm, *Al-fiSal fi al-milal wa-al-'ahwa' wa-al-Nihal,* Part 2. Beirut: Dar al-kutub al-'ilmiyyah.

Abd al-Masih, *Who is Allah in Islam,* Villach: Light of Life, 1999.

al-Haddad Yusuf Durrah, *al-Quran wa-al-Kitab,* Lebanon: al-maktabah al-bolisiyyah, 1982.

Ashitha Odisho M. Gewargis , *Hilqa De Leshana,* Assyrian-Arabic Dictionary, Baghdad: Matba'a ofset. 1997.

Chapman Colin, *Cross and Crescent,* Downers Grove: IVP. 2007.

Dorman, Harry Gaylord, *Toward Understanding Islam,* New york: Bureau of Publications, 1948.

Frans J. L. Zegers, *Is Allah God,* 2008.

Gibb H. A. R. and J.H. Kramers, *Shorter Encyclopaedia of Islam,* Leiden: E. J. Brill, 1974.

Hitti Philip K, *History of the Arabs,* N.Y: ST. Martin's Press. Inc. 1970.

Izutsu Toshihiko, *God and Man in the Koran,* Tokyo: The Keio Institute of Cultural and Linguistic Studies, 1964.

Khan, Muhammad Muhsin *Summarized sahih al-Bukhari,* . al-Medina: Maktaba Dar Us-Salam, 1994.

Qadis Tharwat, *al-Kitāb al-muqaddas fi al-tārikh al-arabī al-mu'āsir,* al-qāhirah: dār al-thaqāfah, 1999.

Sayuti Najmah, *"The Concept of Allah as the Highest God in Pre-Islamic Arabia"*, Montreal: McGill University, 1999.

Woodberry J. Dudley, "Contextualization among Muslims: Reusing Common Pillars", *International Journal of Frontier Missions,* Vol. 13:4 Oct-Dec, 1996.

Zwemer, S. M. *The Moslem Doctrine of God,* New York: American Tract Society, 1905.

http://quran.al-islam.com/Tafseer/DispTafsser.asp?l=arb&taf=KORTOBY&nType=1&nSora=4&nAya=80

http://en.wikipedia.org/wiki/Origin_and_development_of_the_Qur%27an 참조

원고 접수일 : 2008년 11월 10일
심사 완료일 : 2008년 11월 21일
게재 확정일 : 2008년 12월 4일

<Abstract>

The Divine Concept of the Arabs

Kong, Il-joo

After research on "Allah" in historical, linguistic, theological and sociocultural perspectives, it was discovered that "Allah" first originated from Aramaic, was used by Arab Christians, then was taken by Islam. Eventually it was found that this term is not only the term of today's Muslims but was actually in use before Islam.

In order to be differentiated from the doctrine of God, Muslims developed the Tawhīd(absolute monotheism) doctrine. Eventually Tawhīd has emerged as a powerful symbol of divine and socio-political unity. Muslims dreamed of unity and one Ummah.

After comparison between the attributes of Allah of the Qur'an and God of the Bible, both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were found, but the conclusion differed depending on which was given more weight. Allah of the Qur'an is more impersonal than Yahweh. The Qur'an and the Bible clarify the differences between God and Allah. The transcendence of Allah in Islam does not permit Muslims to accept all the character of God in the Christianity because it is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the Christian God who desires a Koinonia relationship with his creation.

Key Words: Tawhīd, Allah, God